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겪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돕습니다.

- 임금을 못받았거나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도 보상을 못받은 경우
- 부당하게 폭행이나 추행등을 당한 경우
- 예기치 않은 질병등의 건강상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
- 한국인과의 결혼문제나 한국에의 적응문제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쉼터를 통한 도움이 있습니다.

- 우리 상담소에는 약 스무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쉼터가 있어 아프거나 갈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임시로 머물며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 한방과 양방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무료 진료를 실시 합니다.
- 의료 보험이 적용 안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자체 의료 보험 공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 한국 생활에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초급, 중급, 고급의 한글 교실이 있습니다.
- 여름 수련회와 함께 외국인노동자들의 명절과 축일에 함께 모여 문화 행사와 각국의 음식을 나눕니다.
-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관한 각종 조사 연구와 교육, 언론 홍보 작업, 정책 제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인들은 한글교실, 여름 수련회등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거나 명절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을 가정에 초청해서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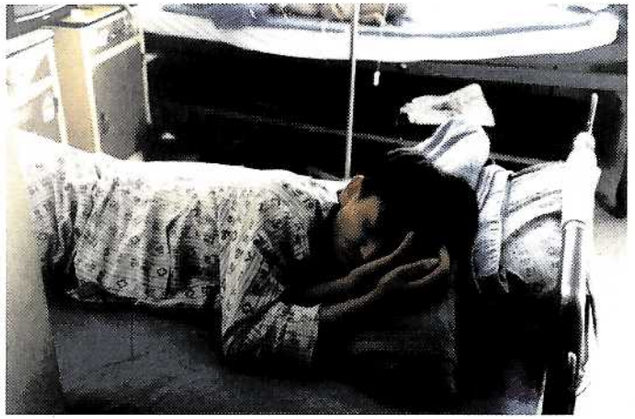
외국인노동자의 집 / 중국동포의 집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 2 동 7288-11 (461-192) ☎ (0342) 756-2143/ 4 팩스 (0342) 757-8093

발행인 / 김해성
편집인 / 정유경
발행일 / 97년 2월 15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7288-11
전화 / 0342-756-2143 팩스 / 0342-757-8093

손에 손잡고

Hand-In-Hand 제 5호 1997년 11월호

특집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 문제



타고난 가난을 벗어나고자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던 젊은 네팔인 노동자 체왕이 나병으로 고생하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자기와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집 / 중국동포의 집
Migrant Workers' House / Korean-Chinese House
외국인노동자의 집 / 중국동포의 집은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의 새 이름입니다.

❀ 소식지 제5호를 내며 ❀

초대의 글

방글라데시 독립기념일 행사에 오셔서 그들의 음식과 문화공연을 즐기세요.

때: 12 월 21 일 오후 2 시

문의: (0342) 756-2143/4

하루는 한국말이 아직 능숙치 못한 한 외국인노동자 한 분이 상담실에 오더니 느닷없이 자기를 삼천원짜리 의사에게 데려달라고 말해서 상담실 실무진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삼천원짜리 의사란 항상 싼값에 정성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을 치료해주시는 이민상 내과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16 쪽).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인 의료 문제와 이를 도와주시는 여러 고마우신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힘을 모아 추진하고있는 외국인노동자 선교센터 및 교회당에 관한 이야기들을 실어보았습니다.

매서워지는 날씨 속에 이 소식지가 따뜻한 마음의 난로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빌며 외국인노동자들이 다양한 그들의 언어로 띄우는 인사(3쪽)와 옆의 재미있는 행사의 초대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편집자 정유경 드림

❀ 차례 ❀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드리는 인사

✝ 저희 상담소를 찾으시는 한국분들이 제일 재미있고 동시에 낯설게 생각하시는 것이 상담소 여기저기에 붙어 있는 이상한 글자들입니다. 그림 같기도 하고 글자 같기도 한 그 문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나라에서 쓰이는 문자들이랍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그들의 언어로 된 감사와 연말연시 메시지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외국인노동자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한국분들!

즐거운 연말과
사랑으로 가득찬
새해를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 이 부분을 방글라데시어로 하면, *(“...”부분은 발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আনন্দময় বিদায়ী সাল ও
ভালবাসায় পরিপূর্ণ শুভ
নববর্ষের প্রত্যাশী করি।

“아넌더머에 비다이샬오
발로바샤에 뻐리뿌너 슈버
너버절셀 쁘롯따라 꺼리.”

¶ 이 부분을 파키스탄어로 하면,

خوش گوار موجودہ سال اور
دل چسپ نیا سال کی
مبارک دیتا ہوں -

“코쉬 가와르모우주당 아오르
딜 쟈스트 너야 샬 끼
무바럭 바드 데따호.”

¶ 이 부분을 중국어로 하면,

祝大家這個快樂的聖誕時,
迎接充滿着愛的新年.

“주따쟈 꺼 위 콰이 더 쥬치넨머
잉제 충만저 아니더 씬이넨.”

☺ *열심히 따라하셨어요? 예, 참 잘하셨습니다.* ☺

시작칼럼

뻐꾸기 울 때 마다

김해성
산자교회 담임 목사이자 우리 상담소의 소장님.
성남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상담으로 시작해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지금까지
여러 해를 한결같은 열정으로 일해오신 외국인노동자들의 친구이시다.

저는 우리 사무실에서 뻐꾸기 시계가 울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훔쳐냅니다. 저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이 시계에 얽힌 사연은 이러합니다.

중국동포 이림빈씨(26 세)는 지난 6월 13 일 프레스 작업 도중 오른쪽 손목을 절단당했습니다. 중국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에 오기 위해 960 만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입국한지 나흘만에, 그리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지 이틀만에 당한 일입니다.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상담소의 도움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았는데 남은 민사배상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10 월 3 일까지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0 월 3 일이 딸의 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약한 힘이나마 모아 조금의 선물과 위로금, 비행기 티켓을 전달했는데, 출발하기 전날밤에 이림빈씨가 뻐꾸기 시계를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하는 말이 "이제 아침이면 중국에 가게 되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뻐꾸기 시계가 울때마다 저를 기억해주시고 용기있게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이림빈씨는 출국을 하고 없지만 시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는데, 다행히도 며칠 전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화에 이 모든 시름은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다 잘 되었어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목사님도 힘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도 희망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한주간에는 여러 엄청난 사건들이 해결되고 자그마치 아홉 건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한숨 돌리기도 전에 또 선원으로 일하던 중국동포 정관욱씨가 사망했다는 비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누가 이들을 위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함께 어깨를 걸어주시지 않겠습니까? ❀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 문제

☜ 한달에 두세 건은 보통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장례식. 그들의 의료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 문제 **전반적인 문제의 이해를 위하여**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죽어간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양혜우
우리 상담소의 사무국장으로 지난 몇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양한 의료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겪어왔다.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병상을 지켜온 그녀를 그들은 '누나'라 부른다.

❀ *지난 몇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일하시며 다양한 문제를 겪으셨는데 외국인 노동자 문제 중에서 의료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의료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적당한 의료 기관을 알아봐 주고, 통역을 해주고, 외국인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이 높은 치료비이면 협상이나 호소를 통해서 치료비를 조절하는 일, 갈데 없는 환자이면 우리 쉘터에 머무르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 받게하는 일과 병으로 숨진 환자들의 장례와 유해 본국 송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병들도 있지만 천만원

이 넘는 치료비가 들어가는 심각한 병들도 많습니다.

✵ 이들이 이토록 심각한 의료 문제를 겪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을 적절한 의료 기간을 찾지 못하고 방치하기 때문에 간단한 병도 심각해지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을 찾는것을 몹시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합병원의 경우 복잡한 병원의 진료 절차와 비싼 진료비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병을 키우다가 이미 손 쓸 수 없을 때에야 약으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을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심지어는 생명마저 잃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문화나 날씨 등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은 어떨까요?

이들은 대부분 더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 추위에 잘 견디지 못해서 아픈 경우가 많고, 한국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데 공장의 기숙사에서는 일률적으로 한국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밥에 물을 말아 먹거나. 밥과 달걀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연히 몸이 허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의 본국에서의 직업이 학생이나 교사, 사무직 종사자 또는 장사를 하던 사람들로 한국에서와 같은 강도 높은 일을 한 경험이 없어 무리한 노동을 잘 견디어 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앓는 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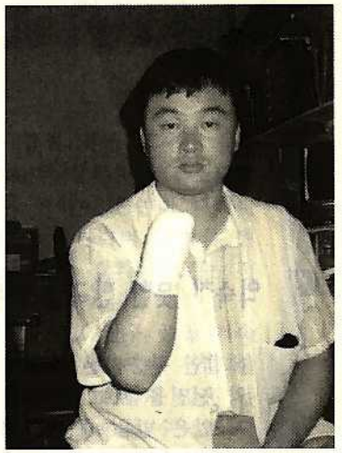
기후 차이에서 오는 환절기 감기와 같은 병이나 익숙치 않은 육체 노동을 하는데서 오는 근육통, 신경통과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고 최근 과로사로 인정되는 청장년 급살 증후군으로 죽는 경우도 보입니다. 그외에 심리적 압박감과 부적응의 문제도 들 수있습니다. 과대한 브로커비를 내고 입국하게 되니까 불법체류하면서 언제 강제 출국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감이 삶을 긴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온갖 신경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또한 위험한 직종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장 내에서 안전사고의 문제로 손가락등을 잘리거나 뼈를 다치는 사고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60%를 차지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 문제는 의료 보험의 문제로 일단 집약되어 설명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의료 보험 혜택이 전혀 없고, 의료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알려진 합법적 체류자인 산업 연수생들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습니다. 일단은 한달에 10달러 정도 하는 의료 보험 비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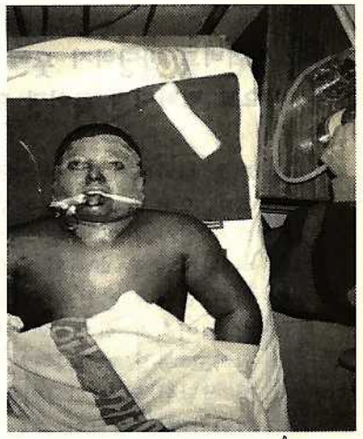
연수생 자기 부담이라서 의료 보험에 관한 개념이 없는 나라에서 온 그들은 얼마 안되는 월급에서 그 돈을 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의료보험 혜택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설령 의료 보험이 있다고 해도 공장에서 시간을 잘 빼주지 않아 병원에 가지 못한다든가 간다고 해도 말이 잘 안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일단 의료 보험의 문제가 제도 개선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 그렇게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설 의료 공제조합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일을 함께 하는 상담소들이 힘을 모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 보험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와 제도화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 의료 문제는 그들의 노동 환경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 위의 사진은 한국에 온지 나흘만에 프레스 기계에 잘려 오른손을 모두 잃어버린 중국 동포 이림빈씨. 아래 사진은 일하던 공장에서 불이 나 그 불을 끄려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결국은 사망한 방글라데시인 자케르 후세인씨.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은 안전 시설이 미비한 영세한 공장에서 의료보험 혜택이나 산업 재해에 대한 보상 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한다.

상담 사례

익숙치 못한 한국말 때문에 위세척을 해야했던 구룽씨

네팔인 구룽씨는 머리가 너무 아파 평소 테레비젼를 통해 보아온 두통약 선전을 보고 약국에 가서 펜잘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발음 때문에 약사는 펜잘을 벤졸이라고 잘못 들어 벤졸을 건네주었다. 구룽씨는 벤졸이 두통약인줄 알고 마시고 급히 119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가서 위세척을 하는등 어려움을 겪었다.

입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약으로 버티다가 죽어간 이슬람씨와 에산 울라씨

더운 나라에서 온 이슬람씨는 감기 증세가 계속 악화되면서 열흘 이상 열이 오르고 약을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다가 상태가 심상치 않게 된 후에야 비로서 병원에 실려갔더니 폐렴으로 염증이 가라 앉을 때까지 입원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일단 입원은 하였으나 의료 보험도 없어서 3일 동안 병원비가 150만원이 넘어서자 회사측과 이슬람씨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냥 퇴원하고 공장 기숙사에서 해열제를 먹으며 요양하게 되었다. 며칠후 구정 설날이 되자 한국인들이 모두 휴가를 가고 혼자 기숙사에 남아있던 이슬람씨는 돌보아 주는 사람 하나 없이 끼니도 잇지 못하고 있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올해 사망한 파키스탄 출신의 에산 울라씨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언어 문제와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약국에서 약을 먹으면서 요양하다가 결국 폐결핵과 폐렴 말기로 구급차에 의해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사망하였다.

심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병만 안고 돌아가게 된 후세인씨

한국에 오기위해 700만원을 빚을 내고 매달 1할의 비싼 이자를 지불해야 했던 후세인씨는 한국에 온 6개월동안 10kg의 몸무게가 감소되면서 힘이 없고, 먹은 것을 다 토해내는등 얼굴에 병색이 완연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개인병원과 종합병원등을 찾아다니며 질병의 원인을 찾기위해 여러 가지의 검사를 해 보았으나 검사 결과상으로는 전혀 문제를 찾을 수가 없고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결국 후세인씨는 값비싼 병원비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친구 공장 기숙사를 전전하다가 도저히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우리 상담소에 의뢰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당시 후세인씨는 이렇게 많은 돈을 빚지고 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그래서 본 상담소에서는 우리가 아는 병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론적으로 의사의 소견으로는 심한 심리적 압박과 긴장감, 부적응으로부터 오는 정신과적인 문제라는 의견이었다. 결국 후세인씨는 모든 꿈과 희망을 포기한 채 병만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백혈병으로 고생하다 사망한 준토씨

방글라데시인 준토씨는 1992년이 입국한 28세의 젊은이로 95년부터 계속 몸이 아파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조그만 병원에서 1년 정도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조금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자 우리 상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우리 상담소에서는 이민상 내과와 성남 인하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백혈병으로 판정이 났다.
골수 이식만이 유일한 회생의 길이라는 진단 결과에 준토씨는 죽더라도 가족 품에 돌아가서 죽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여 함께 출입국 관리소를 방문했으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백혈병 환자를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현대 중앙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위급한 상황은 모면하였으나 망막 부분의 출혈로 인해 거의 시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으며 다리도 심하게 절게 되었다. 당시 의사 선생님의 의견으로는 현재 백혈구의 수치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시간

이 지날수록 감염의 우려가 높아 귀국하려면 하루 빨리 출국해야 하며 만일 다시 출혈이 일어나면 언제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였다.
병원측에서는 원활히 출국할 수 있도록 혈소판, 헤모글로빈등의 혈액을 투여하여 다행히도 준토씨의 건강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가 되었으나, 문제는 12일동안 입원한 기간의 병원비 700만원에 대한 지급이었다. 한국에 온지 4년 정도 되는 준토씨는 그동안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을 다녀 많은 진료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준토씨는 자신이 얼마 더 살 수 있을런지에 대한 걱정보다 병원비 걱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딱한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상담소와 대사관측의 간절한 부탁으로 중앙병원에서는 700여만원 이상되는 병원비를 헌혈 증서 50장과 200만원으로 감면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롯데 복지재단에서는 200만원의 병원비를 지원해 주어 준토씨는 곧 출국할 수 있었다.
고국의 그리운 부모님 품에 안긴 준토씨는 공항에서 대기해 놓은 엠블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갔고, 결국 가족의 품에 안긴지 20일도 채 되지 못해 젊은날의 많은 꿈과 소망을 접어둔 채 눈을 감고 말았다.

한국에 일하러 와서 사고로 죽은 부인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는 조선족 남편과 아들. 이들은 그토록 오고 싶었던 할아버지의 땅을 아내와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맞아 밟게 되었다.

¶ 나병으로 고생하였으나 건강한 삶을 찾은 췌왕씨

96년 12월 네팔 현지 방문 때 건강해진 췌왕과 다시 만난 양혜우 사무국장.

췌왕씨는 1992년에 한국에 온 28살의 젊은이로 네팔에 살고 있는 가난을 운명처럼 아는 소수민족 티벳족 출신이다. 췌왕씨의 부모 역시 빈곤했고 국민학교조차 다닐 형편이 되지 못해 그는 10살이 되던 해 친척이 살고 있는 인도로 맡겨졌다. 친척집 일을 도우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췌왕씨는 18세에 아버지의 친구라는 분이 하는 사업을 돕기로 하고 홍콩에 건너갔으나 그의 사업은 밀수였다고 한다. 그가 하는 일은 금과 달러를 삼켜 뱃속에 넣고는 네팔로 돌아가 설사약이나 여러 종류의 약을 먹고 그것을 토해내는 일이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몇 차례 되풀이해 번 돈으로 그의 가족과 어린 동생들에게 돈을 부쳐준 나머지로 한국행 비행기표와 여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비록 고달프지만 열심히 일했고 돈도 제법 모았다. 그러나 한국 생활 3년쯤 몸이 서서히 아프기 시작했고 한 병원에서 결핵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먹게 된 결핵약을 먹고 심한 구토와 고열로 3-4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며 결국 우리 상담소를 찾아오게 되었다.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없어 그는 결국 우리 상담소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양혜우씨의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고 일정 기간후 원인규명도 없이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다시 일자리를 찾아 상담소를 떠났다. 그러나 한달도 되지 못해 또다시 심한 고열로 상담소를 찾아왔으며 진단은 폐렴이라고 했다. 다시 충분한 요양을 한 뒤 차라리 네팔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출국을 준비하였으나 그동안 병원

비로 이미 많은 돈을 빚진 상태였고 업친데 덮친격으로 그가 돈을 불리기 위해 돈을 준 친척의 사업이 망해버려 빈털털이가 되자 그는 다시 출국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 일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또 한달이 채 되지 못해 감기에 걸렸고 약을 먹었으나 별 차도 없이 몸이 퉁퉁 부어 갔다. 여러 검사를 계속한 결과 놀랍게도 그의 병이 나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직도 그의 고향인 네팔에는 나병환자라는 이유로 동네에서 내몰리고, 돌팔매질을 당한다고 한다. 이제 췌왕씨는 네팔로 돌아가면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감금되어 다시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한 푼 없이 날려버려 이제 죽는 일만이 자기의 할 일이라며 절망하고 있는 딱한 상황이었다.

췌왕씨는 극도의 절망 상태 속에서 상담을 통해 죽더라도 일단 고국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만나고 죽겠다고 결심을 하였고 따라서 일단 출입국 관리소에 알렸다. 나병은 법정관리 전염병으로 강제 출국 대상이기 때문에 그는 안양에 소재한 나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두달 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 병원의 친절한 의료진의 도움과 이후 우리 상담소의 교회등을 통한 모금 활동으로 그가 네팔에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정착 할 수 있는 기금들을 마련하였고 나관리 협회에서는 췌왕씨의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도록 지속적으로 약을 무료로 공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성금까지 모아 췌왕씨를 도왔다. 그 결과 췌왕씨는 희망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약을 받으며 본국에서 잘 정착을 하고 있다.

본 상담소 쉼터에서 오래 머물면서 치료를 받아온 중국동포 이성삼 할아버지가 따뜻한 어느날 목발 없이 걷는 연습을 하며 다른 나라의 외국인노동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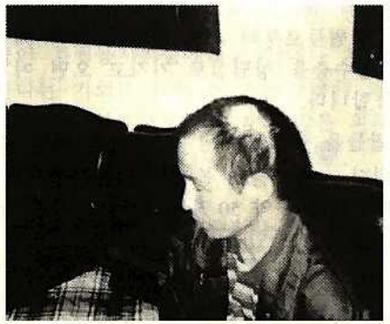
¶ 공장에서 일하다가 엄지 손가락이 절단된 로시드씨

방글라데시인 로시드씨는 1996년 2월 21일부터 인천에 있는 공장에서 일해 오던 중 1997년 1월 장갑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재해를 입었다.

그 후 로시드씨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한마음 병원에서 약 한달간 수술을 비롯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는 통원 치료를 받다가 우리 상담소를 찾게 되었다 우리 상담소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노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나 엄지손가락이 절반 이상 절단되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으며, 다니던 공장에서는 해고된 상태이다.

로시드씨가 일하던 공장은 한국인 7명과 외국인 3명을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강제가입 대상에 해당되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로시드씨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장측은 오히려 자기가 실수해서 다친 건데 무슨 보상이냐며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몰상식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상담소측의 설득과 호소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리 상담소는 해당 근로복지 공단에 로시드씨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상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손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연수생 제도 실시 초기에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 두개골이 부서져 뇌에 큰 부상을 입은 조선족 서복재씨.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그를 회사에서는 곧 퇴원하고 근무할 종용하였다. 이에 그는 우리 상담소로 와서 쉼터에서 지내며 요양을 하였는데 회사측은 그를 연수이탈자로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기까지 하였다. 현 제도에 의하면 합법적 체류자인 산업 연수생의 산업재해 보상금은 95년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그 얼마전에 사고를 당한 서복재씨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의료 공제회와 일요 무료 진료 프로그램

한난

약 5년전에 방글라데시에서 와서 여러 공장에서 힘든 경험을 많이 하다가
우리 상담소를 알게된 후 의료 문제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다.
여러 나라 말에 능통하고 성실한 덕분에
몸이 아픈 각국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오고 있다.

우리들의 의료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의료 공제회

우리 상담소는 95년 10월부터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공제조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회원들은 월회비 오천원씩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우리 상담소측은 각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섭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싼 의료 수가를 적용해 줄 수 있는 병원들을 찾아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처음 가입하면 이 병원들로부터 45%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고 가입한지 두 달이 지나면 병원 영수증을 상담실로 가지고 오면 여기서 다시 반을 깎아 총 75%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상담소를 통해 가입한 사람들은 총 500여명 정도 되고 매달 40여명 정도의 새 회원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볼때는 방글라데시가 약 300여명으로 가장 많고 네팔, 파키스탄, 중국이 약 50명씩, 그리고 이란, 필리핀과 같은 다양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로, 이 프로그램은 자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회비 납부가 중요합니다. 많은 외국인노동자 회원들이 사는 지역이 멀고 공장일에 바빠서 제때 회비를 내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의료 공제회는 제대로 기능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보다 많은 병원, 특히 종합 병원을 회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보다 많아진다면 가입하는 사람의 숫자도 늘고 의료 공제조합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일요 무료 진료 프로그램

96년 4월에 있었던 우리 상담실의 일요 무료 한방 진료소 개소식에서 한의사 선생님과 외국인 노동자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약 3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일요 무료진료 프로그램은 지난 몇년간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유일한 휴일인 일요일에 병원들이 진료를 하지 않고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병원에 간다는 것도 어렵고 가도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이 일요 진료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매월 둘째, 세째, 네째 주에는 향린교회와 정희철 내과에서 양방 진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매주일에는 경원대에서 한의 선생님들과 한의대생들이 오시는데 여러가지 기초적인 검사와 치료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서 혼자 병원에 가는 것보다 훨씬 안심이 됩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안내나 차트 정리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도 되는 이 프로그램은 의료 장비의 강화 등 개선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의료공제회와 함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우리 상담소의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

❁ 양방과 한방에서 진료를 해주시는 다음 의사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향린교회 의사선생님들		임승계	김양호	홍영진	이태환	이명진
향린교회 약사/ 간호사 선생님들			신혜숙	김순호	김의리	황선영
임경심	황남경	향린교회 자원봉사 학생들			이동웅	연상호
경원대 의사선생님들		김주영	윤선묵	박용신	장규태	채문석
경원대 한의대 자원봉사 학생들			김홍만	고재철	윤현숙	김완태
조정익	김승배		정희철 내과 의사 선생님		정희철	

❀ 외국인노동자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도움을 주고있는 분들은
❀ 얼마 안되는 돈을 받고 정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이십니다.
❀ 여기서는 그 중 몇 병원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민상 내과 - 이민상 선생님

성남시 태평 2동에 위치한 이민상 내과는 항상 한국인들과 외국인들로 발디딜 틈도 없습니다. 한국인들도 이 병원을 많이 찾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워낙 친절하신데다가 영어도 잘 하시지, 거기다가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가 병원을 찾으면 검사하고, 치료하고, 약까지 주시고 아주 싸게 해주시는 일이 많아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존경과 감사를 한 몸에 누리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깎아 주셔서 혹시 병원 운영이 어려울까봐 걱정이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가 "선생님, 반 정도만 할인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걱정 말라고, 굶어죽지는 않는다고 대답하신 이야기나 방글라데시에서 온지 얼마 안 된 한국말이 서툰 친구가 상담실에 오더니 "삼천원짜리 의사"에게 데려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들은 외국인노동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민상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간호사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남 의원 - 신상진 선생님

성남시 상대원에 위치한 성남의원 신상진 선생님은 특히 초기에 적은 수의 병원만이 우리 상담실을 도와주고 있을 때 일요일마다 상담실에서 무료 진료를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들이나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 장기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얼마전 공장 기계에 손을 다쳐 손가락을 거의 못쓰던 나시르씨도 선생님 병원에서 장기 물리 치료를 받고 거의 회복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하병원 - 의사 선생님들과 병원당국 여러분

성남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인하병원에 가 보면 항상 저희 상담소를 통해 입원한 환자 두세 명이 환자복을 입고 있는 것이나 한국 환자들 틈에서 조용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하병원은 우리 의료 공제조합의 소속 병원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인데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인과 같이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해주어 치료비가 많이 할인 될뿐만 아니라 각종 수술과 외래, 입원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형외과, 내과, 일반외과에서 치료를 받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병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고민하던 중, 종합병원인 인하병원의 친절한 의료진과 병원 당국자들의 협조는 정말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 정형외과 - 노민 원장선생님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노민 정형외과의 노민 선생님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빈발하는 손가락이 잘리고 뼈가 부러지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치료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대부분 이런 환자들은 손가락 접합 수술과 같은 비용도 많이 들고 큰 수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오래 걸려 일반 병원에서는 기피하나 노민 선생님은 이러한 환자들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끈기와 정성으로 치료를 계속해오셔서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엔젤 (천사)"라고 불리우는 의사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

❤ 무료로 또는 적은 돈을 받고도 정성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을 치료해주시는 다음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 이비인후과	김호석 치과	장수당 한의원	임 안과
예루살렘 정형외과	복 피부과	현대 중앙 병원	천호동 카톨릭병원
황보 성형외과	솔 한의원	이용호 정형외과	

외국인 노동자 교회 소식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의 박종화 총무님을 찾아서

박종화 총무님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이고
한신대 신학과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신다.
독일에서 오래 공부하셔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낯설게 느끼시지 않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

❑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한국 교회내에서 중요 이슈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째로 신앙적으로 볼때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인권과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인간은 서로를 잘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을 보며 인간적인 대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경제적 견지에서 볼때도 어느 사회에서나 바닥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도 명확히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인 것이고 따라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내에서도 소중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독교 장로회 총회 산하의 많은 교회들이 외국인 노동자 선교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협력 할 수 있을까요?

❑ 일단은 각 교회들이 피부색과 문화, 국적만 외국인이지 이미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고 따라서 마치 상처난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손 전체가 아픈 것처럼 그들이 잘 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장 총회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전에는 저희 총회가 필리핀의 침례교 목사님을 초청하여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과의 협조하에 그 목사님이 한국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해 현재 서울 강남 교회에서 목회와 상담을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이면 앞으로도 확대를 해 나가며 기장 총회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중요성을 환기시킬 생각입니다. 또한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이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선교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가 있다면 그들을 교육 시켜 현지로 보낸다면 매우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희 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 및 교회당 건립을 위해 노력중인데요, 연말연시를 맞아 기장 총회와 각 교회에서 이를 돕기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 12월에는 각 교회에서 연말 불우 이웃돕기와 인권 주일을 기념하는 헌금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불우이웃이나 인권이라고 하면 한국인들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초점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맞출 생각입니다.

❑ 기타 저희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나 다른 교회들에게 주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 일단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중국동포의 집이 최근의 한국 여성과 외국인 사이의 아이들에 대한 국적법 소송을 도와 이긴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이는 정말 중요하고 발전적인 일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개방의 시대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다원 사회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각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문화나 종교, 그리고 즐신 국가나 계층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기본으로 선교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외국인 노동자 교회 예배 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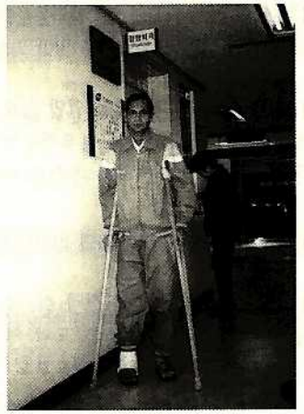
8월 17일 주일부터 주민 교회 지하 교육관에서 중국 한족과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중국어 동시 통역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 **영어 동시통역 예배**와 **러시아어 동시통역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 및 교회당 건립 후원 안내 ✞

외국인 노동자들이 쉬고 다친 곳도 치료하고 자신의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는 장차 해외선교의 획기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선교센터 및 교회당 건립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좌 : 외환은행 102-75-05411-4 (예금주 김해성)
연락처: 한국기독교장로회 외국인 노동자 교회 (임시당회장 김해성 목사)
전화 (0342) 756-2143/4 팩스 (0342) 757-8093 핸드폰 011-239-8201

교통 사고로 영구적 뇌손상을 당한 조두리씨



96년 10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700만원이라는 거액의 브로커비를 내고 한국에 입국한 조두리씨는 꾸어서 마련한 브로커비를 갚기 위해 주간에는 정식으로 공장엘 다니고, 밤에는 또 다른 공장에서 시간당 야간 근무를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약 8개월 후인 97년 6월 22일 오후 10시경 방글라데시 친구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운전하던 친구의 운전 미숙으로 운전자와 조두리씨가 모두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다행히도 가벼운 안면 골절상만을 입었으나, 조두리씨는 다리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고 오산 서울 병원에 입원하여 생사를 넘나들며 수 차례의 뇌수술을 받은 결과 기적적으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측에서는 천만원 이상 나온 병원비 지급을 누가 하느냐며 이제 생명은 건졌으니 병원에서 제발 나가달라고 애원하여 결국 조두리씨의 거처를 우리 상담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두리씨는 수차례의 뇌수술을 통해 생명의 위급함은 없으나. 만성적 두통, 기억력 감퇴, 구토, 지능 저하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다리에 한 기브스로 인해 제대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조두리씨의 뇌장애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는 불가능하고, 부러진 다리가 회복되어 혼자서도 거동이 가능하면 출국할 예정이나, 입국하면서 빚진 700만원도 채 갚지 못하고 불구가 되어 집에 돌아가면 자신만 믿어온 남은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

조두리씨를 후원하실 분은

❣ 25쪽에 있는 후원자 계좌로 입금하시고 상담실로 전화주세요❣

차승만
공무원 연수를 받고 있는
제주도 출신의 젊은 자원봉사자로
우리 상담소에서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이끌어왔다.

올해 4월 중순경 북한 동포의 굶주림의 참혹한 실상을 접하고선 우리 상담소의 외국인 노동자, 중국 동포, 자원봉사자,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과 함께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펼치기로 결심하고 회의를 통해 방법들을 함께 정해 나갔습니다. 비록 박봉이기는 하지만 실무자들을 비롯해 직장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월급의 반 이상씩을 내기로 하고, 학생인 자원봉사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성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소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점심이나 저녁을 밖에서 사먹는 대신 라면으로 때우고 그 돈을 모금함 안에 넣는 일들도 몇달간 계속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도움을 받는 입장에만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과 중국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북한 동포 돕기에 참여하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어, 한자어등으로 씌여진 이름과 그 옆의 모금액등이 기록된 종이가 상담실 벽에 붙어있는 것을 보는 것은 무척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약 4개월간 계속된 모금 운동으로 총 모금액은 618 만원이 되었고 이 돈을 세 번에 나누어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본부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등에 보냈습니다.

지금도 상담실 내에 북한 책과 포스터를 비치하여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홍보 및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 추구하는 이상이 사람 사랑인 한 북한동포 돕기 운동은 민족과 국적을 초월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운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

자원봉사자의 글

이름 외우기

김미라

꾸준히 일요 무료 진료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친절한 미소를 가진 대학생.

며칠 전 나는 늦잠을 잔 덕에 집에서 늦게 나와 버스 정거장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햇살, 자동차 등등이 나를 지치게 하던 찰라에 갑자기 검게 그을린 친구들이 성큼 성큼 오더니 "누나, 안녕하세요?"하며 내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갑작스럽게 받은 인사와 동시에 내가 나도 모르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는지 그 친구는 떠듬떠듬 한국말로 "지난번에 상담소에서 인사했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나는 "아..." 하며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 짧게 몇 마디를 나눈 후 정거장으로 향하였다.

하지만 정거장으로 가는 길에 왠지 발걸음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내가 언제 그 친구와 상담실에서 인사했더라.... 그 친구 이름이 뭐더라....'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는 그 친구에게 너무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반갑게 인사해준 그 친구에게 내가 보여준 것은 단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니... 비록 그 순간은 짧았지만 어떻게나 미안했던지 내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마구 대하는 인색한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울러 근 1년 넘게 무료 진료 파일을 만들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공제 보험카드를 만들면서 만나고 인사했던 많은 외국인 친구들 중에 이름이 기억나는 친구들을 손으로 꼽아보니, 내 스스로가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던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름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겠지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내가 멀리 타국에 외롭게 혼자 있을 때 그 나라 사람이 반갑게 인사해 주고 나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다면 힘들고 외로운 마음에 작은 등불처럼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마 그들을 각각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인간적 예의를 갖추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작은 노력, 외국인 친구들의 이름 외우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외국인 친구들의 이름 외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나는 이상하게도 이름 외우는데는 소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만나는 외국인 친구들의 이름을 100번씩만 반복한다면..... 100번이라면....그 많은 친구들을..... *으악* ---

외국인노동자의 집 / 중국동포의 집 1997년 9-10월 소식

9월 1일	□ 본 상담소 직원들과 외국인노동자 대표들이 광주 외국인 노동자 센터 개소식에 참여하고 망월동 묘역 참배와 통일 미술 대축전을 관람하였다.
9월 8일 10일	□ 기독교 장로회 총회내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들의 외국인노동자 선교 안내 및 서명 운동이 목포 제1유달 교회에서 있었다.
9월 14일	□ 추석을 맞이하여 산자교회에서 외국인노동자 선교 안내 및 서명 운동이 있었다.
9월 15일	□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자조 조직인 방글라데시 파운데이션에서 추석 행사의 일환으로 경기도 양평 용문사 를 방문하였다.
9월 22일	□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본 상담소 직원들과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회원들의 참여하에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있었다.
9월 28일	□ 서울 JC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국경 없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잠실 올림픽 공원 펜싱 경기장에서 본 상담소 외국인 노동자들과 행사를 가졌다.
10월 1일	□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다가 사망한 방글라데시인 밧추씨와와 바부씨의 장례식을 치뤄주고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10월 3일	□ 영등포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중국동포 김철, 김성주, 김청룡 3인의 장례식이 치뤄졌다.
10월 5일	□ 본 상담소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문화 행사인 "지구촌 한마당"이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있었다.
10월 6일	□ 중국동포 현영철씨의 장례식이 있었다.
10월10일	□ 본 상담소의 영문 소식지 Hand-in-Hand 제 1권이 출간되었다.
10월16일	□ 국회 국정감사 노동위원회에서 본 상담소의 중국동포 서복재씨가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관해 증언하였다.
	□ 연수취업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이 서울역 앞에서 있었다.
10월 17일	□ 중국동포 정규락씨의 장례식이 있었다.
10월19일	□ 구로동 갈릴리 교회 희망의 집에서 "외국인 노동자 의료보장 현황과 대책" 심포지움에 본 상담소 양혜우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 가을맞이 체육대회가 본 상담소의 외국인 노동자들, 산자교회, 주민교회 교인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다.
10월23일	□ 한신대 축제 기간중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환자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가 있었다.

다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금을 보내 주신 분들

97년 7월

경기화물공제	조진희	유성숙	한국여성노동자회		연창흠
최윤아	임수겸	임수철	김종월	이현주	박연필
문지현	이복희	한관택	최창은	기장종회	노순애
이종현	한철				

97년 8월

조진희	최홍엽	선한 이웃	임마누엘	김재환	강진
이미경	유성숙	박현선	고부응	최윤아	경기화물공제
김부순	이현주	이복희	최문희	박연필	김현미
이종현	박재순	박기호	서울성남교회드보라회		용두동 감리교회
김미자	차지훈	이유신	김정희	오수경	윤은미
이학이	강신석 (광주 무등교회)		신영아	정혜숙	김지영
심재운	향린교회 여신도회		과천 복락교회 학생회		김은봉
박성운	한기양 (울산 호성교회)		Gerraia Weiner		남성 공업사

97년 9월

인미정	김현의	김해성	존타클럽	김영임	백만종
가은교회	김종회	정락교회	이성자	정안성	김용중
이해룡	고부응	조종민	임수겸	임수철	향린교회
최윤아	김완숙	한관택	오성환	이현주	김영인
이복희	이종현	최용기	과천복락교회		수요 지방 변호사회

¶ 물품을 기증해 주신 분들

97년 7월 - 9월

한국기독교 컴퓨터센터	형영민	김원길	우종주	엄주용
산자교회 여신도회	이은경	신성전자	강영실	김명애
소망교회 여신도회	박수현	임규성	임낙원	백만종
향린교회 청년 여신도회	존타클럽	홍익광고	근로복지공단	

¶ 1997년 한해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신 분들

컴퓨터, 소식지, 자료정리 등을 도와주신 자원봉사자들

엄주용	김명애	김홍인	조종민	Mino Molser	김미라
김이현	박성미	이경원	박혜정	차승만	하현애
김희태	김경렬	강아람	곽희경	Ryan Wright	김은희
김도균	홍경두	이동렬			

다음의 한글 학당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심기황	권일환	한정혜	김민주	태재준
김경윤	김미라	이봉순	김상미	송 원
이종화	심은희	홍은정	이가영	추영란
김성상	강정원	강지숙	권일안	김경윤
김민주	김은희	김지호	김홍인	류경모
류준수	박가나	박용석	이상수	이유근
이형석	장성민	정은숙	최형원	하병헌
			한성숙	한정혜

후원안내

후원자 되시면 외국인 노동자의 집 월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보시고,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여름 수련회, 각종 문화행사, 연말행사 등에 초대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나라를 방문하는 경우 실질적 여행 정보를 드리고 현지인 친구와의 만남을 주선해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면 1년간의 규모 있는 살림살이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구좌로 동봉된 지로용지, 또는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해주십시오.**

□ 연말 세금 정산시에는 연봉의 5%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자동 이체는 매월 은행에 가시는 불편이 없고 정기적으로 정한 기일에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 통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의 구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세요.

시중은행 구좌번호 (예금주 김해성)

농협	169-01-293391	조흥	516-06-598917	신한	611-02-122932
한일	391-050603-02-001	국민	213-21-1007-518	보람	200-18-21453-4
외환	102-18-33033-4	평화	312-21-0144-882	제일	606-20-171832
상업	398-08-007212	서울	52304-1842405	우체국	103481-0159450

외국인 노동자의 집 쉼터에는 30여명이 넘는 산재 환자나 질병을 치료하는 이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감자, 양파등의 부식과 전기장판, 비누등의 **생활 용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